


<div>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div>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div> 환경특별시 인천</div>	
배포일자		2021년 8월 10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도시역사관	담당자	• 인천도시역사관장 이희인 ☎850-6011 • 담당자 김윤희 ☎850-6030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역사관 ‘2021 도시를 보는 작가’
박병일 작가 <숨토피아(sum-topia)>전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오는 10일(화)부터 ‘도시를 보는 작가’ 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일상에 잠시나마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도시 풍경을 한국화에 담아낸 5인의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첫 전시는 독특한 수묵 기법으로 도시의 모습을 그려왔던 박병일 작가의 <숨토피아(sum-topia)>전이다. 숨토피아(sum-topia)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숨’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있다·존재하다’는 뜻의 라틴어 숨(sum)을 가리키고, 여기에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를 합성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도의 모습을 담아낸 최근작을 비롯해 그동안 작가가 진행해 온 작업인 도시 건축물을 블록 형태의 점을 사용해 독특하게 그려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은일의 삶이 되어버린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자유롭게 산책하며

안식을 찾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숨토피아(Sum-topia)>전은 8월 10일(화)부터 9월 5일(일)까지 인천 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인천도시역사관) (<http://icmuseum.inche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전화 ☎ 032-850-6030)

<붙임> 관련 포스터 1부.

<붙임> : ‘숨토피아’ 포스터

